

##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여성 콘텐츠

정석희  
TV칼럼니스트

### 목차

- 1 들어가며
- 2 MBC경남(Radio) 〈수출자유지역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
- 3 KBS청주(TV) 〈양백의 소녀들〉
- 4 TBN제주(Radio) 〈해녀의 삶을 품은 소리, 이어도사나〉
- 5 KBS(TV) 〈골든걸스〉가 용감한 언니들, 양백의 소녀들, 그리고 해녀들에게
- 6 마치며

### 요약

이 글은 지상파 방송사에서 2023년 하반기 제작·방영한 프로그램들 중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여성 콘텐츠'라는 주제로 여성들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일제강점기 타지에 가서 물질하는 제주 해녀들의 애환을 담은 TBN제주 라디오 다큐멘터리 〈해녀의 삶을 품은 목소리, 이어도사나〉부터 7~80년대 경공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하고 가정을 일으킨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청주 대농방직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한 MBC경남 라디오 다큐멘터리 〈수출자유지역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과 KBS청주 특별기획 〈양백의 소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중년여성가수들의 걸그룹 도전기 KBS 〈골든걸스〉의 메시지를 짚어보며, 앞으로도 만들어질 여성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당부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

## 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진취적이고 자의식이 뛰어나다. 과거와는 달리 남자 주인공의 도움 없이도 제 몸 하나쯤은 건사할 줄 알고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여성들이다. 배경이 조선시대라지만, 복색은 한복이지만 세상을 대하는 자세는 요즘 여성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간 전통 사극에서 흔히 봐왔던 여인들의 피 튀기는 암투나 모략 따위는 찾아볼 수 없으니 이렇게 반가울 데가 있다.

KBS <혼례대첩>의 정순덕(조이현 분), MBC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의 박연우(이세영 분), MBC <밤에 피는 꽃>의 조여화(이하늬 분) 등 시대를 초월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인물이 한 둘이 아니다. 어엿한 사대부가의 여인이지만 변복이라는 장치 덕에 정순덕은 중매쟁이로, 박연우는 옷을 지어, 조여화는 마치 홍길동 모양으로 무술을 써서 사람을 구한다. tvN <세작 매혹된 자들>의 차칭 타칭 '바둑의 신' 강희수(신세경 분)도 내기 바둑으로 얻은 재물로 청나라에 끌려간 백성들의 귀환을 위한 몸값을 마련하지 않나.

이렇듯 시대정신을 잘 살린 인물들이 환영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구태의연한 전개로 지적을 받는 사극 드라마도 있다. 원정왕후(이시아 분)를 앞세운 궁중 암투로 인해 진부해져버린 KBS <고려거란전쟁>. 2024년에 왜 2001년 작 SBS <여인천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아무리 사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흐름과 어우러지지 못할 시 대중의 반응이 어떤지 <고려거란전쟁>이 입증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당차고 의로운 여성들이 어려운 백성을 돕고자 떨치고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변듯한 반가의 여식이라는 신분의 뒷받침이 있었을 것이다. 일단 입에 풀칠할 걱정 따위는 아니 해도 되는 형편이었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성들을 보면 다들 호의무사나 몸종 하나쯤은 거느리고 다니지 않나. 몸이 부서지도록 날품을 팔아 부모 봉양하고 형제 거둬가며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인물들인 것이다. 신분이 남다른 여성의 관습을 깬 활약이라서 관심을 받는 것이지 이른바 민초들의 희생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할 수밖에.

## 2. MBC경남(Radio) 〈수출자유지역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청춘을 바쳤음에도, 어찌 보면 사극 속 진취적인 캐릭터보다 더 장한 일을 했음에도 국가 차원의 치하는 고사하고 변변한 감사의 인사조차 듣지 못한 이들이 있다. 제285회 이달의 PD상 라디오 지역부문에 선정된 MBC경남 라디오 다큐멘터리 <수출자유지역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은 7~8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20대 중반이면 노처녀 소리를 듣던 시절인지라 외화벌이에 내몰렸던 여성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의 치열한 삶을 살았을 그들, 용감한 언니들이라고 부르기에 어려도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닌가.

꿈을 향해 나아갈 빛나는 나이건만 집 떠나 답답한 공장 한구석에서 단순노동으로 돈 벌이를 했을 그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했나? ‘당국에서는 근로자라 부르고, 노동청에서는 노동자라 부르고, 누구는 기능공이라 부르고, 누구는 산업전사라 부르고, 누구는 여종업원이라 부르고, 누구는 여공이라 부르고, 누구는 공순이라 부르고’, 3화 ‘서러운 이름 공순이’ 속 한 장면이 가슴 시리다 못해 저릿저릿 아프다.

[그림 1] 수출자유지역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



출처 : MBC경남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구호 아래 양질의 노동력과 근성으로 경제 부흥의 중심에 섰으나 걸맞은 대우는 받지 못했다. 같은 학력이라 할지라도 남성은 사무직, 여성은 기능직이었고

뿐만 아니라 임금 또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너 나 할 것 없이 관습에 순응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 집안 살림에 보태고 성실히 남자 형제들 공부 뒷바라지를 했다나. 실질적으로는 가장 역할을 했음에도 사회적 인식은 그저 한 집안의 일꾼에 불과했다. 이렇게 억울할 데가 있다.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을 보고 있자니 KBS 드라마 <오월의 청춘>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타 지역 공장에서 일하던 딸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딸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오빠 학비는 이제 어쩔 거냐고 오히려 원망하며 통곡을 하는 기막힌 장면 말이다. <오월의 청춘>의 배경이 광주였다.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에 따르면 마산 수출지역으로 일하러 온 전라도 농촌 지역 여성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나. 그러나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성실히 일해 온 그들에게 닥친 시련은 너무도 컸다. 철새와 같은 외자 기업들의 느닷없는 직장 폐쇄, 임금 체불 등의 탄압에 나라와 사회의 도움 없이 외로이 맞서 싸워야 했던 그 시절 언니들. 안쓰러운 한편 자랑스럽기도 하다. 그들의 끈질기고 지난한 투쟁 덕에 현재 여성 노동자들의 입지가 그때보다는 그나마 나아졌으니까.

### 3. KBS청주(TV) <양백의 소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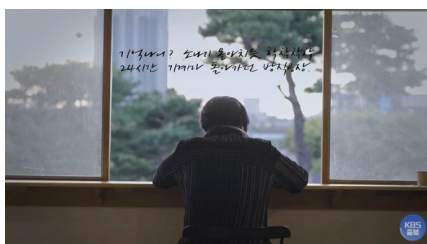
KBS청주 특별기획 <양백의 소녀들>이 들려주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또한 기구절창하다. 1977년에 세워진 청주 대농방직공장의 실정도 마산수출자유지역과 별다를 바 없었다. 나이 어린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를 이뤘다는데,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는 알고 있었지만 중학교도 있었다는 건 이번에 방송을 보고 처음 알았다. 1981년 기준 고등학교 90개, 중학교 53개, 도합 143개 학교에 학생이 6만여 명이었다고. 전국에서 무려 6만 명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는 얘긴데, 왜 나는 몰랐을까? 5-60대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물었다. 한때 산업체 부설 학교 학생 수가 6만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일하는 학생들이 명절에 선물 꾸러미 바리바리 챙겨 들고 귀성 버스에 오르는 장면, 관리직들이 손 흔들며 배웅하는 장면, 우리가 보고 들은 건 그게 전부다. 사회가 애써 외면했기 때문이 아닐까?

열일곱이 되어 처음 입어본 교복이 너무 좋아 교복 자율화가 되었어도 졸업까지 계속 교복을 입었다는 사연이 눈물겹다. 공장을 그만두면 당연히사 학교 공부도 끝인지라 손 다친 걸 애써 숨겨가며 죽기 살기로 일을 했다지 않나. 학교가 꿈을 키워가는 배움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력 이탈 방지책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탈을 막고자 졸업을 하면 관리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감언이설까지 일삼았단다. 중학교를 만든 이유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적어도 도합 6년 동안 잡아 둘 수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 [그림 2] 양백의 소녀들



출처 : KBS충북



양백 여상 졸업생 이정복님이 열일곱 살 적 친구 명옥에게 쓴 편지 내용이다. ‘기억나니? 소나기 몰아치듯 24시간 착착착착 돌아가던 방적 기계. 온종일 눈썹에 붙어 있던 솜면지. 여린 손에 베인 굳은살 (중략)……’. 섬유를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 자욱한 솜면지, 숨 막히게 더운 열기와 싸워가며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꼬박 여덟 시간 일하고 네 시간은 학교 공부를 했다는 양백 여중·여고 소녀들. 그리해서 받은 임금이 1977년 기준으로 오만 원 남짓이었다니 착취가 따로 없을 정도다. 선생님께서는 어렵사리 번 돈이니 집안 살림에 보태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적금을 들라 일러 주셨으나 그 돈 아니면 어머니 신세가 고단해지는지라 어머니 생각해서 기꺼이 보내 드렸다고 한다. 소녀들의 희생 덕에 남자 형제들은 공부를 하여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얻었을 테지. 새삼 알밋지 뭐가.

그러나 기업이 무너지면서 뒤를 이어 양백 학교도 26회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 수순을 밟아야 했다. 양백의 소녀들의 바람은 졸업생들이 양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마도 예서 세월이 더 흐르면 ‘양백의 소녀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리라. 그런 이유로 흩어진 자료를 한 데 모아 기록으로 남겨준 이 프로그램이 반갑고 고맙다.

마산수출자유지역도 그렇고 청주 대농방직공장도 그렇고, 그때는 대체 왜 그랬을까. 누군가가 그 시절 수출 역군의 현장으로 회귀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속 시원한 전개의 드라마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관리직이랍시고 거들먹거리는, 공부 시켜준답시고 생색내는 후안무치한 일당들을 혼쭐을 내주면 좋겠다는 얘기다. 집안 살림에 돈 보탬 필요 없다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기 마련이라고 깨우쳐 주고 어린 학생들의 굳은살 박힌 손이라도 한 번 잡아주면 좀 좋겠나. 아울러 나라가 그분들의 공을 인정하고 치하하는 그림까지 보면 더더욱 흐뭇하겠다.

#### 4. TBN제주(Radio) <해녀의 삶을 품은 소리, 이여도사나>

MBC경남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과 KBS청주 <양백의 소녀들>의 공통점은 음악이다.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에는 해설이 없는 대신 F.R David의 ‘Words’를 시작으로 추억의 노래들이 흘러나온다. <양백의 소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사치였을지도 모를 다방 커피 한 잔과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눌러쓴 신청곡, 타향살이의 서러움과 외로움을 달래줬을 그 시절 노래에 귀 기울이고 있자니 흑백 사진 속 그때 그 언니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노래가 유일한 위안이었던 또 다른 언니들이 있다. 바로 제주 해녀들이다. 한때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청주 대농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주 해녀들도 더 나은 소득을 얻고자 타지로 나가 물질을 하며 떠돌아야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운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TBN제주 다큐멘터리 <해녀의 삶을 품은 소리, 이여도사나>에 의하면 해녀가 타지로 물질을 떠나는 걸 ‘출가’라고 불렀단다.

### [그림 3] 해녀의 삶을 품은 소리, 이여도사나



출처 : TBN제주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어부들이 제주도 구내로 밀려와 불법 남획을 하는 바람에 어장이 심히 피폐해졌던지라 제주 해녀들은 살기 위해 우리나라 삼면에서 갈 수 있는 바다란 바다는 모두 누비며, 섬과 섬을 떠돌며 물질을 해야 했단다. ‘저승에서 돈 벌어 와서 이승에서 자식을 먹여 살린다’, 해녀의 고단한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공장지역 여성 노동자들과 또 하나 일치하는 점은 타지로 물질을 하러 온 나이 어린 해녀들도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다는 것. 어린 나이에 집 떠나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애잔했을 텐데 따스히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리 모질었을까.

출가로 인해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아예 혼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짝을 이뤄도 본의 아닌 별거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단다. 그러니 흐르는 시간 안에 켜켜이 쌓인 설움이 오죽이나 깊겠는가. 세월이 흘러도, 시절이 달라져도 물질에서 여전히 헤어 나오지 못했다는 해녀 어르신들의 뉘그러가 애달프다. 해녀들이 해산물 채취를 위해 바다로 나갈 때 목 적지까지 숨이 턱에 닿도록 노를 저으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여도사나’이다. ‘너와 떨어져 있는 섬(離汝島)’이란 뜻을 지닌 이여도란 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출가한 어린 해녀들이 목숨을 걸고 떠돌던 이 땅의 모든 섬들이 이여도였지 싶다. 이 노래의 구절구절마다 공감과 울림을 넘어선 깊은 한(恨)이 느껴지는 이유를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tvN <우리들의 블루스>나 JTBC <웰컴투 삼달리> 처럼 해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화제의 드라마들이 해녀들의 소소한 일상



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해녀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이여도사나’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못내 아쉽다.

5. KBS(TV) <골든걸스>가 용감한 언니들과 양백의 소녀들,  
그리고 해녀들에게

오랜 세월 공감 어린 노래로 우리를 위로해온 인순이, 신호범, 박미경, 이은미, 네 가수가 K팝 걸그룹으로 거듭났다. KBS <골든걸스>. 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맨발의 디바 이은미 까지 아이돌가수들이 출 법한 춤을 추게 만들었으니 놀라운 일이지 뭐냐.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 수가 4천만 뷰를 넘어섰고 멤버들은 각기 예능 브랜드 평판 지수 상위권에 오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연일 쏟아지는 기사며 후배들의 존경을 담은 게시물들,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관록의 가수들임에도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인 것이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당당히 도전에 성공했다. 이 성공은 스스로에게도 뜻깊겠지만 같은 연배인 중·장년층 이상의, 특히 여성 시청자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60대가 인생이라는 여정의 순탄한 착륙을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일 나이가 아니라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오히려 날아올라도 좋은 나이라는 걸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이제 이미 색이 바랬다, 아니 아예 색을 잃었다고 여겼을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 이유인지 7개월 간의 ‘골든걸스’ 기획에 마침표를 찍는 기부 공연장을 찾은 관객의 대다수가 중·장년층 여성이었다. 어쩌면 ‘용감한 언니들’이나 ‘양백의 소녀들’ 중 누군가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림 4] 골든걸스



출처 : KBS



‘이렇게 꿈을 버릴 수는 없어, 더 이상 궁금하고 싶지 않아,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아, 내 안에 모든 걸 다 걸어봐 right now’. 골든걸스의 데뷔곡 ‘One Last Time’ 가사 중 한 부분이다. 젊은 날 꿈을 펼쳐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용감한 언니들’과 ‘양백의 소녀들’, 어리디 어린 나이에 출가로 세월을 보내야 했을 제주 해녀들에게 들려주고픈 노래다. 그 시절의 열정과 용기를 되살려 날아올라 보시라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내 안의 모든 걸 다시금 걸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 6. 마치며

앞서 언급한 상상력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극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들은 다들 담을 타 넘는다. 실제로 조선시대였다면 반가의 여식이 담을 넘는다? 행실이 음전치 못하다고 단박에 경을 쳤겠지만 드라마에서는 ‘퓨전’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그 모든 걸 허용한다. 가장 의미심장한 건 그들의 장기다. 매파로 나섰던 KBS <혼례대첩>의 순덕의 눈썹미와 말재주, 지금으로 치면 의상 디자이너였던 MBC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의 연우의 바느질 솜씨, tvN <세작 매혹된 자들>의 몽우의 뛰어난 바둑 실력, 거기서 더 나아가 무술을 쓸 줄 아는 MBC <밤에 피는 꽃>의 여화는 목숨을 걸고 구휼에 앞장선다. 가난 구제는 임금도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나. 역사상 허난설헌, 신사임당 등 글로 그림으로 이름을 알린 여성들은 있었으나 재주나 기술로 담을 타 넘듯이 관습의 한계를 뛰어넘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백성을 적극적으로 돕는 예는 본 적이 없다.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나이 어린 여성들의 노동력 착취가 일상다반사였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연히 했던 7~80년대를 배경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누가 주인공을 맡으면 좋을 까? <밤에 피는 꽃>의 조여화(이하늬 분)가 가장 적임자이지 싶다. ‘감히 아녀자가 어떻게 여기에 나왔느냐’는 조정 신료들의 호통에도 아랑곳 않고 만인지상 임금 앞에서 차분히 시아버지인 좌의정 석지성(김상중 분)의 죄과를 폭로한 여화. 그런 여화가 시간 여행을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을 향해 ‘수출 역군을 구실 삼아 청소년 여성들의 애국심을 이용하는 게 경우에 맞느냐’, 가슴 똥 뚫리는 일갈을 쏟아 내면 좋겠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독려가 필요하면 독려를, 내 권리는 나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일깨워주면 좋겠다. 타임 슬립을 하는 즉시 마산부터 먼저 달려가 한바탕 평정을 하고 청주로 무대를 옮겨 손 좀 봐주고, 청소년 여성 노동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혼을 내주면 오죽이나 시원하겠는가. 강단 있고 당찬 성품에 배려 깊고 측은지심 있고, 무술 되겠다, 리더십 넘쳐 나겠다, 다 지어낸 얘기임을 알지라도 얼마나 훈훈하겠는가. 상상만으로도 신바람이 난다.

한쪽에서는 그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애써 잊고자 했던, 아니 아예 짐작조차 못했던 7-80년대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다. 또 한쪽에서는 신분을 내려놓은 채 ‘을’을 기꺼이 자처하며 최강의 ‘갑’들과 대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매력 넘치는 주인공들이 속속 등장한다. 물론 아침저녁 일일 드라마 상황은 여전히 한결같이 신데렐라식 개연성 없는 전개여서 여전히 아쉬우나 이런 식으로 도처에서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하다. 부디 더 나아가 MBC경남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과 KBS청주 <양백의 소녀들>을 기반으로 7-8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재조명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를.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알게 되기를.